



광주상의 신년 인사회 '지역 경제 도약의 해' 광주상공회의소는 5일 오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기관단체장과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과 윤정현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올해 지역 경제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文에 날세우는 안철수

<문재인>

측근들, '대선 비망록' 출간·신당 창당 물밑 논의
새정치 2·8 전대 앞두고 당권구도에 미묘한 파장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 진영이 사실상 '비문'(非문재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은 박지원 1문재인 후보의 '민주당' 당명 복원 공약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안 의원의 측근 인사들은 대선 비망록을 발간, 문 후보 측을 정조준 하는 한편 물밑에서 신당 창당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5면>

실제로 강연재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등은 '안철수는 왜?'라는 제목의 대담집을 조만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책에는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와의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회고한 내용을 포함, 문 후보와 친노(친노무현)측에 대한 저자들의 비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석규 전 새정치추진위 전략 기획팀장, 정기남 한국정치리더십센터 소장 등 일부 측근출신 그룹은 오는 15일 모임을 갖고 신당 창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일부 인사들의 대담집 출간과 신당 창당 논의 등에 대해 '유감'이라며 선을 그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석차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의원이 오는 7일 전대 예비경선(컷오프) 투표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전대 보이콧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안 의원 측근 인사들의 행보는 전대를 목전에 앞둔 예민한 시점과 겹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안 의원 진영의 움직임이 '반문(반문재인) 전선'을 확대시켜 비노(비 노무현) 진영의 막판 세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상임고문의 합류가 점쳐지는 '국민모임'은 7일 신년모임에 이어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까지 전국순회 토론회를 연다.

이어 2월초에는 '2차 국민선언'을 통해 대대적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당권 구도에 막판까지 요동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입장 뒤집기에 '문화전당 특별법' 위기 임시국회 통과 위해 지역 정치권 힘 합쳐야

자연되면 전당 운영 인력·재정 확보 큰 차질 우려

광주의 최대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 뒤집기로 처리가 지연돼 지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지역 정치권도 이 과정에서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이 법안이 오는 14일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오는 4월 임시개관 후 9월 공식개관한다는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 민·관·정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서남해 2219개의 '보석' 전남 섬의 재발견 ▶18면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에 따르면 오는 8일 교문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안이 8일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에도 상정하지 못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관련 상임위원 교문위는 지난해 12월17일 여야는 물론 정부와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뒤 다음날인 1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었다. 당시 교문위에서는 여야정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만큼 법안 통과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하지만 당시 18일 전체회의는 여당 지도부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광

주 관련 법안'이라 운운하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학교 부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딜(거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이미 합의한 내용을 반복하는 협상안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해자 의원은 "정부 측에서 얼마 전에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을 3년 한시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해 거부했더니 오늘(5일)에는 5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그동안의 합의를 뒤엎고 있다"며 "아마도 행자부나 기재부가 강요하고 새누리당과도 계속 얘기하면서 이미 합의 처리한 법안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박 의원과 지역시민·문화단체만 외롭게 목소리를 높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 광주시는 물론 다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이 지역의 우윤근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데도 상임

위 법안소위 통과 20여일이 다 되도록 여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또 새누리당의 유일한 호남지역구 의원이자 당 지도부 일원인 이철현 최고위원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관계자는 "우선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법안 통과를 위해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우 원내대표도 산적한 당 현안 때문에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일일이 챙기기 힘들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80년 구제역 청정지' 전남을 사수하라

충북·경북·경기 확산에 비상

충북에 시작된 구제역이 경북은 물론 경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34년 이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남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뒤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북과 경북·경기지역 등의 축산차량 이동 제한 등 대응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최근 한 달 사이 충남·북과 경북·경기 등 전국 32곳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돼지는 모두 2만5600여마리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만 경북 안동과 의성의 농장에서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충북 음성시 돼지도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역이 발병된 농장이 소재한 지역 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21곳, 충남 7곳,

경북 3곳, 경기 1곳 등이다. 정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축산관련차량의 운영을 전면 통제 한 가운데 전국 도축장 등 관련시설에 대한 2차 일제소독을 7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해운 열정검사도 모든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태료 한도를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1차 일제 소독에 이어 7일 축산 관련 차량 운영을 전면 통제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과 소·돼지 등 전 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 또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및 축산 정책자금 지원 제 등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주택공급실적 1위(일반분양)
대한주택보증 AAA등급(최고등급)
8년 연속 신용등급 A(2007년~2014년)
2014년 호반계열 매출액 2조8천억원(추정)

“2015년에도 대한민국 행복을 키우는 호반의 집짓기는 계속됩니다”

2015년, 올미년에도 더 큰 믿음과 정성이 있는 집을 짓겠습니다
26년 주택건설의 신화를 이어 당신의 행복한 집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광고 이미지 것으로 호반건설과는 무관합니다